

헤레우스 메디컬 (Heraeus Medical), 강스템바이오텍과 골관절염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 헤레우스 메디컬, 줄기세포 연구 전문 기업인 강스템바이오텍과 공동 연구 진행
- 재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13.09.2017 - 독일 테크놀로지 기업 헤레우스의 글로벌 사업부 중 하나인 헤레우스 메디컬 (Heraeus Medical)이 줄기세포 전문 기업 강스템바이오텍과 골관절염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헤레우스 메디컬과 강스템바이오텍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임상과 임상 1/2a 상을 공동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동 개발은 재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의 골관절염 치료제 보다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자체 줄기세포 GMP 센터와 연구 센터 운영 등 줄기세포 연구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다. 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 건수로 전 세계 3 위에 자리하며 현재 약 80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헤레우스 메디컬의 앤드류 윌리엄슨(Andrew Williamson)은 “강스템바이오텍과 협업을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동 연구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 고령화와 뛰어난 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아시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의학 치료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고 덧붙였다.

###

[헤레우스 소개]

헤레우스는 독일 하나우에 위치한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1851년 설립 이후 세계적인 가족 기업으로 성장했다. 헤레우스는 전문지식과 혁신을 중시하며, 뛰어난 운영 능력과 세계 선두업체로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업 고객들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결합한 고급 솔루션을 개발한다. 헤레우스의 주력 분야는 환경, 에너지, 의료, 모빌리티, 산업 응용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소규모 부품에서부터 통합적 재료시스템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헤레우스의 매출은 약 20억 유로, 귀금속 분야를 포함한 전체 매출은 216억 유로로, 현재 12,400여명의 임직원이 40개국 100개 이상의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헤레우스는 세계 시장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6년, 헤레우스는 독일 내 “상위 10대 가족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Morvyn Lipinski
Manager Media Relations
Communications & Marketing
Heraeus Holding GmbH
Phone +49 61 81 35-97 93
Email morvyn.lipinski@heraeus.com